

무언의 몸짓, 오월을 기억하다



ACC 예술극장 극장1에서 오는 20~22일 5·18 소재의 오브제 연극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가 펼쳐진다. 공연의 한 장면. <ACC제공>

1980년 5월의 광주는 언어로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다. 그날의 고통과 뜨거운 연대, 그리고 잃어버린 삶들을 그 어떤 말이 온전히 담아낼 수 있을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김상욱, ACC)이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예술극장 극장1에서 선보이는 오브제 연극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는 그런 한계를 정면으로 마주한 작업이다. 오브제 연극이란 대사 없이 오브제와 몸짓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의 공연을 의미한다. 말 대신 사물, 대사 대신 움직임으로 표현한 5월의 광주가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

이번 작품은 ACC가 '사물의 계보'를 주제로 진행한 '2024 아시아 콘텐츠 공연개발'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제작됐다. 지난해 시범 공연을 거쳐 관객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본 공연이 완성됐다. 연출을 맡은 적극은 '연극을 질문하는 연극'이라는 실험적 작업으로 연극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사물에 부여된 기존의 정의를 해체하고 새로운 상상력을 펼치는 시도로 2024년 동아연극상 새겨냄 연극상을 수상하는 등 '독보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연출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작품 역시 대사 중심의 기존 서사극의 틀을 넘어 사물(오브제)과 퍼포머의 몸짓이 극의 전개를 이끈다. 무대 위를 가득 메운 오브제들은 희생과 상처, 삶과 죽음을 은유한다. 관객은 고요한 공연장 안에서 감각의 언어를 통해 오월을 느끼게 된다.

사물·퍼포머 몸짓, 이야기 주도
연극·무용·음악, 조화로운 구성
관객, 고정석 없이 이동하며 관람

작품은 전지창조의 7일을 구조적 모티브로 삼아 '창조'의 시간과 '종말'의 시간을 아우르는 총 8막으로 구성됐다. 각 막은 광주의 상징적 장소를 배경으로 설정돼 있다. 1막은 '빛이 있으라'는 창조의 첫날에서 출발한다. '통증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다'는 문장에서 영감을 받아 고통이 빛으로 전환되는 장면을 그린다. 무대를 뒀던 환한 빛은 역설적으로 짙은 고통을 의미하게 된다. 이후 2막 금남로와 충장로, 3막 신묘역, 4막 상무관, 5막 전일빌딩 등 공간의 기억을 오브제로 형상화하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6막에서는 헬기 사격 현장에서 죽음을 맞은 이들이 펼쳐는 '극중극'이 등장하고, 7막은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위무(慰撫)의 의례, '음복'으로 마무리된다.

마지막 8막은 지금껏 쌓여온 오브제들을 하나하나 철수시키는 역순의 장면으로 구성된다. 관객은 설명 없이 텅 빈 무대에 남겨지고, 이 고요한 순간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광주를 몸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시간'이 된다.

공연은 블랙박스 극장의 공간을 그대로 활용해 고정된 객석 없이 관객이 극장 안을 자유롭게 이동

하며 관람하도록 구성됐다. 관객은 무대 위 오브제와 퍼포머의 움직임을 따라 다니며 각자의 방식으로 광주의 감각을 마주하게 된다. 무언의 언어, 정지된 사물, 그리고 움직이는 몸이 관객의 기억과 상상 속에서 하나의 이야기로 조합되는 셈이다.

연극, 무용,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출연진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전통음악, 현대음악, AI가 생성한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며 공연의 흐름을 구성한다. 음악감독 신원영과 해미 클레멘세비치가 공동으로 음악작업에 참여했으며 김복만 안성시립 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 예술감독, 김성근 국악기 연주자, 그리고 전남도립국악단의 단원 14명이 참여한다. 퍼포머 김용빈, 임영, 정나원, 최도혁을 비롯해 ACC 시즌 예술인 배우 7명도 움직임을 통해 무대를 채운다.

적극 연출가는 "광주는 단일한 사건이 아닌 감정의 집합이며, 수많은 상처와 사랑, 분노, 침묵의 목소리로 구성된다"며 "그 목소리들을 듣기 위해 기존의 언어를 비우고 감각의 언어를 선택했다"고 전했다.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는 5·18을 설명하거나 재현하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언어로 포착되거나 하나의 의미로 고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관객 스스로가 느끼고 해석하는 여지를 남긴다. 그렇게 '광주'는 단일한 기억이 아니라, 감각의 흐름으로서 '어디로나' 흘러가게 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해킹 당한 '예스24' 이틀째 먹통

KISA에 피해 신고… "개인정보 유출 없고 차후 보상안 안내"

이틀째 '먹통' 상태가 된 인터넷서점 예스24는 랜섬웨어에 의해 해킹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스24는 해킹당했다고 전날 오후 KISA에 피해를 신고했다.

예스24도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9일 오전 4시께 랜섬웨어로 인해 접속 불능 상태가 됐다고 해킹당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사고 발생 직후 보안 강화 조치를 하고 KISA 등 관계 당국에 신고했으며 사고 원인 분석 및 피해 여부 파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킹으로 인해 전날 새벽부터 도서 검색 및 주문, 티켓 예매, 이북(eBook), 전자도서관, 사략(도서 커뮤니티) 등 예스24의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다.

예스24는 해킹당한 것을 일반에는 감추다가 10일 연합뉴스 보도로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해야 랜섬웨어 공격을 당한 사실을 공지하고 사과했다.

예스24는 "조사 결과, 회원님들의 개인정보는 일체의 유출 및 유실이 없는 점을 확인했으며, 주문 정보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 역시 정상 보유 중"이라며 서비스를 정상화한 뒤에 보상 방안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다름’이 주는 지적 희열

목포 출신 김태영 시인 '매일 밥 짓는 하느님' 펴내

창작의 본질은 새로움이다. 예술가의 숙명은 그 새로움을 발견하고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것을 보여주고,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대개의 경우 창작에도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 자신도 모르게 해왔던 방식을 반복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새로움이란 전혀 다른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데 있지 않다.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풀어내는 방식이 기존의 문법과 다르면 지적인 희열과 이색적인 감성을 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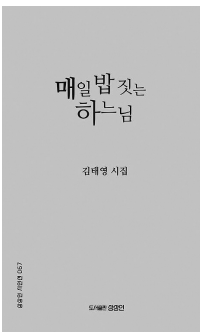
목포 출신 김태영 시인의 시는 언어의 의미망을 확산한다. 익숙한 맥락을 거부하고 다른 관점에서 시들을 흥미하게 하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 펴낸 '매일 밥 짓는 하느님' (상상인)은 그의 시적 지향을 보여주는 작품집이다.

시인은 언어를 형식이라는 기본 틀에 가두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둔다. 자유로운 의미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다른 의미를 사유하게 하는 것이다.

"갈 때 가더라도 갈대/ 미워요 수수꽃다리// 별 집을 건드렸네/ 셋노오란 은행잎"

위 시 '비탈길'은 가을녘 어느 언덕이나 산자락의 풍경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갈대', '수수꽃',



'별집', '은행잎'이라는 시어를 모티브로 가을의 풍경을 서정적으로 묘사했다. 마치 한쪽의 수채화가 눈앞에 펼쳐진 느낌이다.

비탈길 숲 언저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연의 이미지를 화자는 무심한 듯 짧은 시행으로 갈무리했다.

한편으로 우리 삶의 한 단면 같기도 한 작품은 '비탈길'에 선 이들의 쓸쓸하면서도 담담한 심상을 포착한 듯 하다.

시인인 황정산 평론가는 "그의 간결한 모든 시적 표현들은 언어를 작고 단단한 의미구조 속에 압축하여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자유로운 의미의 공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움츠림 같은 것이다"고 평한다.

한편 김태영 시인은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예술세계'로 등단했다. 시집 '버드나무 버드나무 흰 그림자'를 펴냈으며 '사랑은 쓰고 거짓은 달콤한' 전 등 4회 그림 개인전을 열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으로 사유하는 '오월정신'

오월문예연구소, 소설 '소년이 온다'·시 30편 작품 해설, 사적지 답사



문학 치유 프로그램 협약식 장면.

<오월문예연구소 제공>

'소년이 온다'와 함께 읽는 30편의 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와 30편의 시를 읽으며 오월정신을 사유하고 문학을 향유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오월문예연구소(대표 나종영)은 9일부터 12월 까지 '한 편의 소설과 서른 편의 시로 읽는 오월문화예술'을 동구지역자활센터 교육장에서 펼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구지역자활센터와 협약을 통해 운영되며 국립5·18민주묘지 및 주요 사적지에서도 체험 형식으로 진행된다.

조진태 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조성국 시인, 김미승 시인이 강의를 맡아 오월의 역사와 문학의 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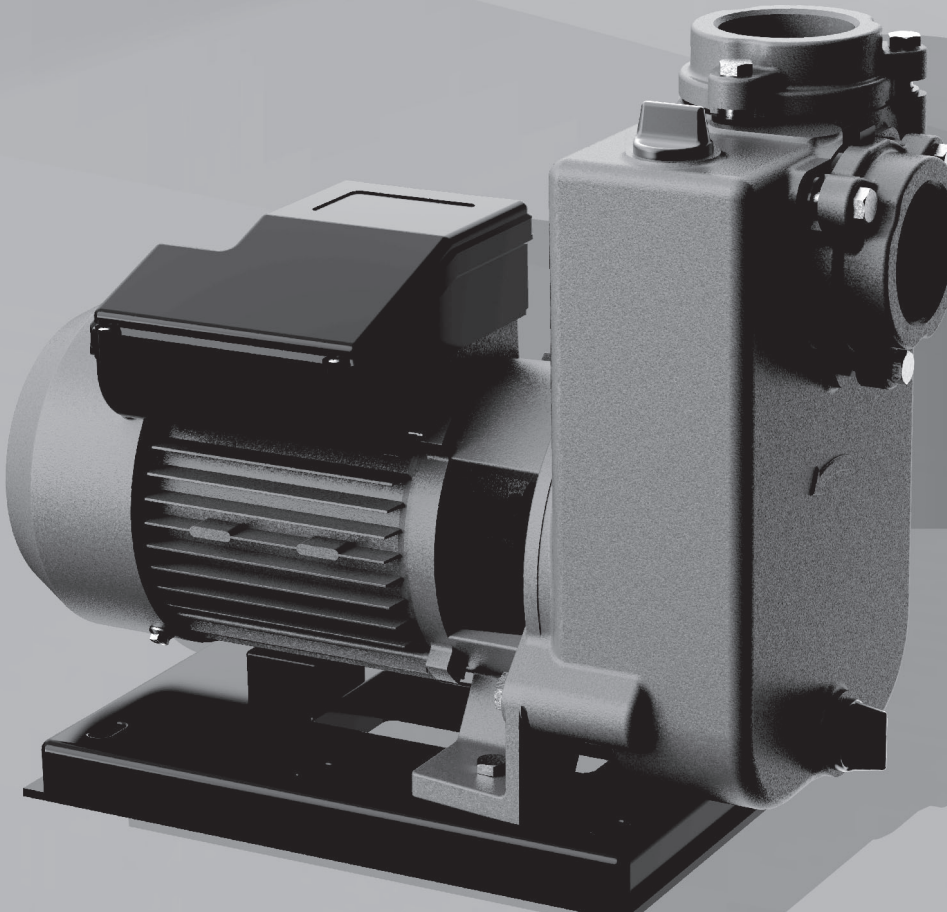
림을 시민들과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구지역자활센터에 등록된 자활참여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문학 치유 및 일상 속 문학 향유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나종영 대표는 "이번 과정은 시민 독서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문학작품을 통해 자기 치유, 인문 상상력 증진을 위해 기획됐다"며 "문학의 위로를 경험하고 오월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지원센터, 오월문예연구소가 공동 주관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